

신체가 내포한 '동질 이형'의 특성

여성의 신체와 '동질 이형'의 특성

글. 김석원 시각예술평론가, 한양대학교사회교육원 교수

사진의 역사에서 여성의 신체는 사회와 깊은 연관성을 맺어왔다. 단적으로 장르화 시키면 누드 사진이 이에 해당하는데, 각기 다른 사회적 환경에 따라 신체를 대상으로 한 누드 사진은 다양하게 전개되어왔다. 신체의 역할은 그 형태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사고를 간접적으로 암시하게 하고, 그 시대의 사고를 반영하고 관능적인 예술의 주제가 되기도 하였다.

영어권에서는 나체를 의미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다. 그것은 알몸(Naked)과 누드(Nude)로서, 알몸은 우리가 옷을 벗어버린 상태에서 느끼는 무방비한 육체를 의미하고, 누드는 조화롭고 아름다우며 자신감 있고 균형 잡힌 육체를 의미한다. 아울러 누드는 예술로 볼릴 수 있는 치장된 신체를 말하기도 한다. 그것은 예술가에 의해서 미화되고 변형되는데 그것은 완성된 작품을 바라보는 감상자의 태도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누드란 무엇인가? 케네드 클라크(Kenneth Clark)는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인들이 창안한 예술 형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클라크는 누드가 예술의 주제가 아니라 예술의 한 형식이라는 것. 누드를 낳게 하는 정신상태는 단순하게 대상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담겨 있다고 했다. 그는 모델이 한층 이상화되어 있을수록 그것을 모방하려는 사진들은 그만큼 더 불행하다고 언급하며 사진에서의 누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그런 의미에서 <홍성용 작가의 누드>가 지닌 예술적 가치는 여성을 원래의 인간으로 복귀시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은 추위와 외부적인 여러 충격에 대한 방어 수단인 동시에, 자신을 대변하고 신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체 위에 덧입혀진 치장한 옷을 벗어버리고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순수한 자연의 세계로 회귀한 누드,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에로티즘을 표방하지 않고, 자연으로 회귀한 상태의 누드는 다양한 가치를 지닌다. 작가의 이런 의도는 <기원전 시리즈-introduce an era>에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사진에서 여성의 신체는 성형수술 혹은 자신을 '잘 갖추어 입는 행위(dress up)' 이전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기원전은 사회적으로 타자에게 드러내는 여성의 자연스러운 신체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보여준다. 시각적으로는 녹슨 철판, 페인트가 벗겨진 상태, 고목 등의 이미지와 오버랩 된다. 언뜻 보기에는 자연적인 사물과 결합하여 대상성이 '유기(遺棄)'된 상태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작가가 의도하는 지점은 타자에게 보여주기 이전의 있는 그대로의 내면적인 모습, 신체는 자연의 상태에서 사회적인 이유로 인해 노화될 수 있다는 미래적인 측면을 다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유도한 장치이다.

작가의 또 다른 작업인 <사회적 변형-social transformation>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몸이 변형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각적인 부분은 신체의 특정한 부분으로 꺾매고, 덧쓰인 흔적이 발견된다. 신체의 모습은 정신과 신체가 조화롭게 작용한다는 의미보다는 신체가 정신의 부속품처럼 처리되어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몸이 있는 그대로 자연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변형의 의미는 다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미술용어로 많이 사용하는 데포르메(deformation)는 사실적인 모습을 작가의 주관을 통해서 과장을 통해 변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변형>에서의 변형은 영어식 표기로 transformation으로서 원래의 모습을 벗어나서 다른 형태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거시적인 의미에서 변형은 deformation과 transformation이 신체의 모습을 지나치게 과장되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선 유사하지만, 여성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신체를 바꾼다는 의미에서 transformation이 적합하다. 덧붙이면 작가가 의도한 transformation이 제한된 변형을 의미한다면, 미술에서 사용하는 deformation은 신체를 자율적으로 변형한다는 점이 다르다. 두 가지 표현방법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신체를 변형한다는 지점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홍성용의 사진 두 시리즈는 모두 세 가지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그것은 첫째, 인체의 모습에서 의도적으로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했다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형태가 동일한 것으로 유니폼적인 장치를 의미하고, 얼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대상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문제는 익명성의 문제로 다시 되돌아간다. 즉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은 각자 다른 체형과 20-30대 연령으로서 다양한 신체를 보여주지만, 여성의 얼굴은 가려져 있기에 관객은 그녀들의 신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둘째, 첫째 부분과 부분적으로 겹치는 지점이지만, 시각적으로 집중하게 하는 방법론의 측면에서 볼 때, 형상(figure)과 배경(ground)에서 찾을 수 있다. 신체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를 증폭시키고 배경은 담담하게 대상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인간과 대상 사이에 신체가 가진 성질은 정신이 제외된 변질한 형식의 특수한 관계가 형성된다. 하나의 대상적인 신체는 독립된 관계와 인간이 자신의 모습을 지배하는 방식을 넘어서 반대로 사회적인 메커니즘, 시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간과 대상과는 변질된 특수한 관계가 형성된다. 즉 A를 말하면서 B를 언급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동질 이형(同質異形: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외형을 가진 물질들이 동일한 성분을 공유하는 화학용어)'의 성질에 도달하게 된다.